

방송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

반 미 영 | 방송작가

방송을 위해서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만난 사람 중에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하기에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진한 여운을 남기는 사람 문득 문득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 방송으로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

방송작가 일을 하다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한 눈에 속 들어오는 미모의 연예인에서부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회 저명 인사들, 뉴스의 주인공들.

그때 그때 방송을 위해 만나고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스쳐 가는 인연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잘 나가는' 소위 스타급 연사를 대면하는 일은 방송국을 일터로 삼는 작가들에게도 새삼 뿌듯한 보람이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스타가 된 듯한 착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격(格) 또한 한 단계 상승했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 찾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투박한 손으로 고물을 고르고, 음식을 나르고, 사람 좋아 보이는 너털한 너털웃음 외에는 딱히 이렇다하게 봐 줄 만한 맵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주로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미담의 주인공, 소박한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방송을 위해서 만나고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스쳐가는 인연 정도에 불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담의 주인공들 모두가 감동이 될 수는 없고, 솔직히 그들의 한없는 '사람 좋음' 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저 주인공의 가족이라면, 아내라면, 자식이라면 지금처럼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 주는 입장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속물이니까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들만의 용기라고 도망쳐 버립니다.

## 잊을 수 없는 사람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속초에서 조그마한 여관을 운영하는 할머니.

주변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김치도 해서 퍼다주고, 아픈 데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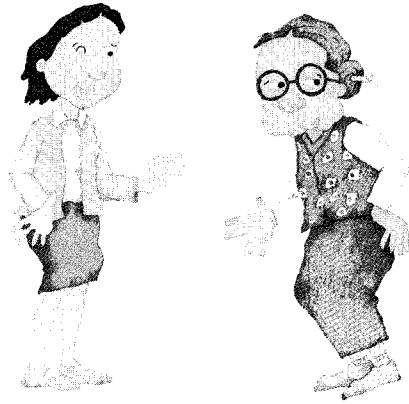
약도 사다주고, 자신보다 더 어린 할머니들의 병수발, 음식수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초 갯마을 골목골목을 누비던 할머니.

몇 년 뒤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화면으로 만난 할머니는 태풍에, 화재에 그나마 있던 여관집마저 다 타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보다 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고, 마른 몸은 더욱 휘청거리 보였지만 목소리와 웃음소리만큼은 여전히 찌렁찌렁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부이자 초등학교 아이들의 엄마이자 공부방 활동가인 한 안경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 넉넉지 못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안경점을 하는 이들 사장 부부는 개업하고 전단지 돌리기 위해 골목골목을 누비다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의 뜻 있는 이웃들을 모아서, 학교 선생님도 참여하고, 주부들도 모이고, 대학생도 모여서 '해맑은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가출하고 알콜 중독인 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이, '혼혈아' 놀림을 받으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 '해맑은 공부방'에서는 안경점 사장님의 두 아이들도 모두가 똑같은 반 친구입니다.

책꽂이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일년 전 공부방 소식지. 후원계좌를 옮겨적고는 조금 전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곧 봄 소풍도 가야 할 텐데 김밥 한 줄 더 사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월 속에 진한 여운이 남는 사람들

방송작가 일을 하다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방송의 일이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의 일로 더욱 진한 여운을 남기는 사람... 문득 문득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까지 저한테는 화려하고 똑부러지고 유명세 얻어 바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딘지 부족하고 품격은 좀 떨어져 보여도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쌓아 가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모양입니다.

'당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도와줘? 누구네 집 애처럼 공부를 잘하니, 말을 잘 들길 하니? 누구는 부모가 아파트 얻어줬다면데...'

그저 부러운 마음에 함부로 내뱉은 말에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새삼 반성의 마음이 생기면서 안되었습니다. 이 봄이 훌쩍 가기 전에 "자기야, 요즘 어때?" 친한 척도 좀 하면서 지금이라도 제가 그 사람 앞에 봄꽃으로 피어줘야겠습니다.